

## 포럼 &lt;&lt;



류석춘

연세대 사회과학대 교수  
사회학

■ 노르웨이에서 23일 벌어진 끔찍한 학살극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범행의 동기나 배경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의지한 인간의 야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를 극한에서 보여주었다.

## 인간의 야만 드러낸 노르웨이 참상

그러나 동시에 이민자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 사건의 메시지는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하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국내에서도 이 문제는 이미 발등의 불이다. 한편에서는 '다문화'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방법을 놓고 좌충우돌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는 '다문화' 때문에 사회통합이 파괴되고 있다는 극단적 민족주의 담론도 인터넷에 등장하는 형국이다.

이른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노동 현장과 배우자를 찾을 수 없는 농촌 현실은 이미 국민적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여기에

## 폐쇄적 민족주의의 함정

더해 이제는 이 빈자리를 채워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2세들이 자리면서 겪는 문제를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치며 살고 있다.

'다문화'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지만 업무 중복 등 교통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유관 부서 간의 불협화음 또한 다문화 정책을 중구난방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하철 타면 내 옆자리는 빈자리'라는 동남아시아 유학생의 호소는 이 문제가 비단 제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심각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문화적 차원의 민족주의는 양가(兩價)적인 특성을 갖는다. 힘이 없는 민족에게 이 담론은 '민족자결주의'라는 방패로 활용될 수 있다. 그 반면에 힘이 있는 민족에게 이 담론은 '식민주의' 혹은 '패권주의'라는 공격용 창이 되기도 한다. 창과 방패라는 모순(矛盾)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문화 민족주의라는 양날의 칼이 만들어내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본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민족자결주의라는 방패가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면,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한 지금 우리는 어려운 처지의 민족에게 상처를 주는 공격적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민족자결에 의지해 패권에 저항하던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개방을 추구하면서 열린 민족주의를 실천해 세계 시장과 국제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었다.

반면에 죽의 장막, 철의 장막을 훑내낸 북한은 지금까지도 문을 닫아걸고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집착해 오늘날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부분의 공산국가마저도 개방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좌파 민족주의에 갇혀 있다. 민족의 자유는커녕 생존권도 보장해 주지 못하면서 핵무기로 강성대국을 추구하는 김정일은, 무고한 시민을 웃으며 정조준하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

세계화 시대의 폐쇄적인 민족주의는 그것이 좌파 노선이든 우파 노선이든 비인간적이고 반역사적이다. 상황에 맞지않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생얼'이 드러난 경우는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9·11테러 역시 세계화 시대의 폐쇄적 민족주의의 민낯이다.

## 김정일과 브레이비크

브레이비크는 바다 건너 유럽과 미국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민족주의가 가진 창과 방패의 속성을 상황에 따라, 그리고 맥락에 따라 적절히 구사하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 어떠한 재앙이 초래되는지를 북한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좌파 민족주의와 우파 민족주의의 폐쇄성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은 그래서 더욱 심각하다. 폐쇄적 민족주의라는 야만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야 한다.